

정서추론 과제에서 3세 및 5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

- 단서의 종류 및 상황-정서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

The Cognitive Cuing of 3- and 5-year-old Children in Emotional Inference Task *

- According to Cue Type, and Situation-emotion Fit -

정현심(Hyun Sim Jung)¹⁾

이순형(Soon Hyung Yi)²⁾

ABSTRACT

An emotion inference task was used to investigate children's cognitive cuing by age, cue type, and situation-emotion fit. Subjects were 41 of 3-, and 5-year-old children from two different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Each child was individually interviewed with pictorial tasks. 5-year-old children demonstrated more cuing, thinking, and application responses than 3-year-old children. Particularly, they showed more situation and thinking responses in situation-emotion match than in situation-emotion mismatch. 3-year-old children showed more past-oriented responses than 5-year-old children. In the interpersonal cue story, there were more situation, past-oriented and thinking responses than in the interobjective ones. The interpersonal cue story produced more situation responses in situation-emotion match than in situation-emotion mismatch.

Key words : 인지적 단서활용(cognitive cuing), 단서의 종류(cue type), 상황-정서 일치여부(situation-emotion fit).

*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HM2501)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yun Sim J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hillim 9 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bt77@snu.ac.kr

I. 서론

상황 및 개인정보를 토대로 타인 정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정서추론이라고 한다(Gnepp & Gould, 1985). 타인의 정서추론은 유아의 또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타인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서를 이용해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을 추론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추론의 과정은 과제 수행에 사용한 인지적 단서활용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지적 단서활용이란 특정한 단서가 지식이나 정보의 원천이 됨을 알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단서활용은 인지 과제의 문제해결과 관련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적 단서활용에 대한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문제해결이나 기억과 관련하여, 목표대상을 숨기거나 찾는 상황에서 단서가 목표대상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유아의 사실적 지식(오선영, 1992; Beal, 1985; Geis & Lange, 1976; Gordon & Flavell, 1977; Kobasigawa, 1974; Ritter, 1978; Sodian & Schneider, 1990)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정서 변화의 원인을 추론하는데 있어 인지적 단서활용의 인과적 기제에 대한 유아의 이해(이수원·최보가, 2001; 이순이, 2001; Gnepp & Gould, 1985; Lagattuta, Wellman, & Flavell, 1997; Lagattuta & Wellman, 2001)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 3세 유아는 목표대상을 숨기거나 찾는 상황에서 단서와 목표 대상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초보적인 이해가 가능한 반면, 5세 유아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인지적 단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Beal, 1985; Gordon & Flavell,

1977; Sodian & Schneider, 1990). 이와 달리 3세 유아도 인과적 기제를 이해한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Lagattuta et al., 1997; Lagattuta & Wellman, 2001). 이처럼 인지적 단서활용의 발달에 있어서 인과적 기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만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적 단서활용 능력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이수원·최보가, 2001; Gnepp & Gould, 1985; Lagattuta et al., 1997; Lagattuta & Wellman, 2001)에서는 인지적 단서활용을 다양한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상황반응, 과거반응, 단서반응, 사고반응, 활용반응으로 구분하여 인지적 단서활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서추론 과제에서 인지적 단서활용은 단서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선행연구들(김민화, 1992; 김희태, 1990; 이순이, 2001; Gnepp & Gould, 1985; Lagattuta et al., 1997; Lagattuta & Wellman, 2001)은 일반적 의미에서 관련있는 의미단서, 개인의 경험과 관련있는 개인단서, 사진과 관련있는 사진단서, 주어진 상황과 관련있는 상황단서 등 여러 종류의 단서들을 통해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령 전 유아는 주로 상황단서에 의존하여 정서를 추론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단서를 이용한 정서추론이 증가하는 반면, 상황단서를 이용한 정서추론은 감소하였다(김민화, 1992; 김희태, 1990; Gnepp & Gould, 1985). 개인단서를 이용한 추론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의미단서라는 한 종류의 단서만 다루거나, 서로 다른 범주의 단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을 뿐, 타인의 내적 상태 이해와 관련된 개인단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타인의 정서

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조망하는가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Lagattuta et al., 1997). 따라서 개인단서를 이용한 유아의 추론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연구(조공호, 1986; Schutz, 1970)에 기초해 개인단서가 사람과 관련된 단서인지, 아니면 사물과 관련된 단서인지에 따라서, 즉 대인단서와 대물단서에 따라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 및 정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Lagattuta et al., 1997; Lagattuta & Wellman, 2001)에서는 정서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분석하거나,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초점을 두었을 뿐, 상황과 정서의 일치, 불일치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는 스스로 학습한 문화적 스크립트를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타인의 정서를 예측하며 설명할 수 있다(Lewis, 1989; Russell, 1989).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사건에 대해 유아가 가지는 정서적 표상인 스크립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스크립트는 일상적 상황이나 상호작용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식에 대한 개념들을 제공해주며(Shank & Abelson, 1977), 친숙한 상황에서 유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고 화를 내는 것처럼 유형화되지 않은 감정을 보이는 인물을 보았을 때, 어린 유아는 종종 다른 사람의 독특한 태도나 감정을 참조함으로써, 즉 자신의 스크립트 지식을 활용해 갈등을 해결한다(Gnepp, 1983; Gove & Keating,

1979). 따라서 정서가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촉진할 수 있고(Lagattuta & Wellman, 2001), 어린 유아도 일반 상황에서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관습적 감정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Borke, 1971; Russell, 1990)를 토대로, 제시된 이야기 상황과 주인공 정서의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적 단서활용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인단서를 대인단서와 대물단서로 구분하여, 개인단서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살펴보고, 제시된 이야기 상황과 주인공의 정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은 아래의 연구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은 유아의 연령(만 3세,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은 단서의 종류(대인단서, 대물단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은 상황-정서 일치여부(일치 과제, 불일치 과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41명

과 만 5세 유아 41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3세와 5세로 선정하
이유는 이 시기의 유아들이 정서와 관련된 상황
을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와 미래의 정서에 대해 토의
하고, 정서 상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적절하
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연구대상 유아는 남아가 42명, 여아가 40명이
있고, 3세 유아의 평균 연령은 3세 6개월, 5세
유아의 평균 연령은 5세 4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측
정하기 위해 Lagattuta와 Wellman(2001), Lagattuta
등(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토대로 연
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Lagattuta
등(1997)은 개인단서, 의미단서 및 사진단서에
대한 인지적 단서활용을 분석하기 위해, 슬픈
사건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주인공의 정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을 상황반응, 단서반
응, 사고반응, 인지적 단서반응의 네 가지 범주
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Lagattuta와 Wellman
(2001)은 기쁨, 슬픔, 화남의 정서 상황을 제시
하고 정서단서와 행동단서에 대한 인지적 단서
활용을 이전 경험 반응, 사고반응, 인지적 단서
활용 반응의 세 가지 범주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상황반응과 과거반
응, 단서반응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단서반응
과 상황반응, 단서반응과 과거반응을 동시에 보

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 반응 범주를 재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유아의 반응을 상
황반응, 과거반응, 단서반응, 사고반응, 활용반
응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
아가 상황반응과 단서반응을 혹은 과거반응과
단서반응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단서반응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단서의 종류 및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3세 및 5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측
정하기 위해서 <표 1>과 같이 16가지의 이야기
를 구성하였다. 이야기의 기본 틀은 Lagattuta와
Wellman(2001), Lagattuta 등(1997)이 사용한 것
을 활용했다. 대인단서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물
건을 친구에게 선물 받았을 때 기뻐하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친구가 주인공에게 부정적인 말, 행
동을 보였을 때 느끼는 주인공의 정서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대물단서의 경우
에는 친구가 아닌 사물이 제시된다. 일치 과제
는 이전의 사건에서 주인공이 느낀 정서와 이후
의 사건에서 주인공이 느낀 정서가 일치하는 경
우이고, 불일치 과제는 주인공이 상반되는 감정
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설정했다.

<표 1> 이야기 구성

단서의 종류	일치여부	정서의 종류	이야기번호
대인단서	일치 과제	긍정	1, 2
		부정	3, 4
	불일치 과제	긍정	5, 6
		부정	7, 8
대물단서	일치 과제	긍정	9, 10
		부정	11, 12
	불일치 과제	긍정	13, 14
		부정	15, 16

이야기 과제는 아동학 대학원 전공자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의견이 일치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3인에게 이야기 상황이 해당 연령 유아에게 적절한지를 검토 받아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타인과의 정서 상황이라는 점에 한정하여 상황을 구성하였다. 주인공의 정서는 기쁨의 긍정 정서와 슬픔과 화남의 부정 정서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이야기는 6장의 그림으로 구성되므로 측정에 사용된 그림의 수는 총 96장이다. 그림 과제의 주인공은 유아와 동성의 인물로 선정하며, 유아에게 제시되는 그림은 13×9cm 크기의 흑백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야기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각 이야기 상황에서 범주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이면 1점을 부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표 2> 범주별 내용

범주	내 용
상황 반응	현재사건 때문에 인물이 정서를 느꼈다고 설명할 때/ 인물의 현재의 욕구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과거, 단서,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과거 반응	과거사건 때문에 인물이 정서를 느꼈다고 설명할 때/ 현재, 단서,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단서 반응	단서를 보았기 때문에 인물이 정서를 느꼈다고 설명할 때 /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현재나 과거사건이 단서와 연관됨을 이해할 때
사고 반응	과거사건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서를 느꼈다고 설명할 때/ 단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다른 원인 때문에 과거사건을 생각한 것으로 설명할 때
활용 반응	인물이 단서를 보고 과거사건이 기억났다고 설명할 때/ 인물이 단서를 보고 과거사건을 생각했다고 설명할 때/ 과거사건, 단서, 생각 모두에 관한 언급이 있을 때/ 과거사건과 현재사건의 인과적 기제를 이해하고 있을 때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단서활용의 총 점수 범위는 각 범주별로 0점에서 16점까지이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된 신뢰도는 .85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 간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음자료를 근거로 의논하여 합의에 의해 범주화하였다.

3. 연구 절차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이야기 수준을 결정하고, 각 이야기 상황에 대한 그림 과제 도구의 적합성과 소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3세, 4세, 5세 유아 각 4명씩 모두 1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2곳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가 인지적 단서활용에 관한 16가지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 정도로 나타나서, 후반으로 갈수록 유아가 이야기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16가지 이야기 그림 과제를 모두 하루에 실시하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유아의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에서는 하루에 8가지 이야기씩 이틀에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8가지 이야기에 대한 면접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유아가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술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그림번호와 이야기내용에 번호를 붙여 면접자가 이야기 내용을 보고 그림 순서에 맞춰서 지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였고, 각각의 유아에 대해 면접자의 목소리톤이나 얼굴표정을 동일하게 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연구자가 서울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오

전 자유놀이 시간에 연구대상 유아를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의 동작실에 불러서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3인이 일대일 면접을 통해 16가지 이야기 상황에서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측정하였다. 이야기 상황에 따른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야기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으며, 1회의 면접에서 8개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가 면접 장소에 들어오면 유아에게 연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각 이야기 상황별로 그림을 한 장씩 유아에게 제시하면서 그림의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각 이야기 상황이 끝나면 유아에게 질문을 하고, 유아가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이야기를 들은 유아에게 통제질문(예전에 영희가 왜 기뻐했을까?)을 통해 유아가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 질문(지금 영희가 왜 기뻐하고 있지?)을 통해 현재 주인공의 정서 원인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면접자의 질문과 유아의 응답은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둘째 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합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t 검정, 쌍체 t 검정(paired t-tests)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유아의 연령, 단서의 종류 및 정서와 상황의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의 전

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적 단서활용의 각 범주별 점수는 <표 3>과 같다.

과거반응 범주에서는 3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평균 점수가 5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반응, 단서반응, 사고반응, 활용반응 범주에서는 5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평균 점수가 3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유아와 5세 유아 모두 상황반응, 과거반응, 사고반응 범주에서 대인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가 대물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세 유아의 경우 단서반응 범주에서 대물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가 대인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보다 높고, 활용반응 범주에서는 두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유아의 경우는 단서반응 범주와 활용반응 범주에서 대물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가 대인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에 초보적인 인지적 단서활용이 가능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단서활용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단서의 종류 및 정서와 상황의 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황반응, 과거반응, 사고반응 범주에서 대인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가 대물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거반응 범주와 활용반응 범주에서 대물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가 대인단서 이야기에서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반응 범주의 경우 대인단서 이야기에서 일치 과제의 평균 점수가 불일치 과제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대물단서 이야기에서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서반응 범주에서 대인단서 이야기와 대물단

서 이야기에서 일치 과제에서의 평균 점수가 불일치 과제에서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반응, 사고반응, 활용반응 범주의 경우 대인단서 이야기와 대물단서 이야기에서 불일치 과제의 평균 점수가 일치 과제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서의 종류, 정서와 상황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인지적 단서활용이 다름을 보여준다.

유아의 연령, 단서의 종류 및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인지적 단서활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주별로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고, 단서의 종류 및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의 각 범주에서 연령, 단서의 종류 및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지적 단서활용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과거반응($F=5.85, df=1, 80, p<.05$), 단서반응($F=9.68, df=1, 80, p<.01$), 사고반응($F=10.41, df=1, 80, p<.01$) 및 활용반응($F=9.80, df=1, 80, p<.01$)에서 연령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3세 유아의 과거반응 점수가 5세 유아의 과거반응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단서 이야기의 경우 6세 유아보다 4세 유아가 과거 사건과 관련하여 정서 변화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순이, 2001)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나이가 어린 유아는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고 과정이 단순한 과거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고반응에서도 5세 유아의 사고반응 점수가 3세 유아의 사고반응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서반응의 경우 5세 유아의 단서반응 점수가 3세 유아의 단서반응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

<표 3>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점수

반응 범주	단서 종류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	연령		평균 (N=82)
			3세(n=41)	5세(n=41)	
			M(SD)	M(SD)	M(SD)
상황반응	대인	일치	2.00(1.18)	2.41(1.22)	2.21(1.21)
		불일치	1.88(1.31)	1.49(1.31)	1.68(1.31)
		평균	1.94(.94)	1.95(.10)	1.95(.97)
	대물	일치	.71(.78)	.85(.85)	.78(.82)
		불일치	.76(.77)	.80(.87)	.78(.82)
		평균	.73(.60)	.83(.61)	.78(.60)
과거반응	대인	일치	.46(.74)	.12(.51)	.29(.66)
		불일치	.56(.87)	.37(.86)	.46(.86)
		평균	.51(.69)	.24(.59)	.38(.66)
	대물	일치	.10(.30)	.02(.16)	.06(.24)
		불일치	.24(.62)	.05(.22)	.15(.47)
		평균	.17(.36)	.04(.13)	.10(.28)
단서반응	대인	일치	.44(.74)	1.02(1.19)	.73(1.03)
		불일치	.34(.69)	.71(1.01)	.52(.88)
		평균	.39(.58)	.87(.97)	.63(.83)
	대물	일치	2.10(1.16)	2.66(1.13)	2.38(1.17)
		불일치	1.83(1.22)	2.29(1.27)	2.06(1.26)
		평균	1.96(.16)	2.48(.15)	2.22(.11)
사고반응	대인	일치	.00(.00)	.02(.16)	.01(.11)
		불일치	.02(.16)	.32(.69)	.17(.52)
		평균	.01(.08)	.17(.36)	.09(.27)
	대물	일치	.00(.00)	.00(.00)	.00(.00)
		불일치	.00(.00)	.10(.37)	.05(.27)
		평균	.00(.00)	.05(.19)	.02(.13)
활용반응	대인	일치	.00(.00)	.00(.00)	.00(.00)
		불일치	.00(.00)	.07(.35)	.04(.25)
		평균	.00(.00)	.04(.17)	.02(.12)
	대물	일치	.00(.00)	.05(.22)	.02(.16)
		불일치	.00(.00)	.15(.42)	.07(.31)
		평균	.00(.00)	.09(.23)	.05(.17)

다. 활용반응의 경우도 5세 유아의 3세 유아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상황반응에서는 3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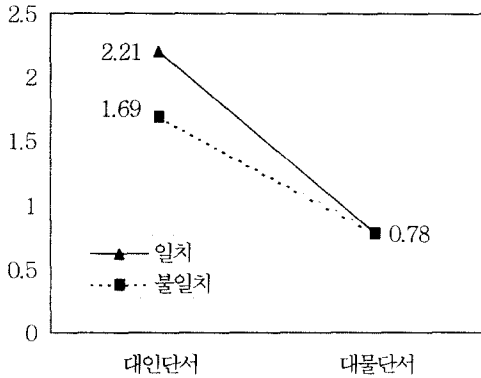
단서의 종류에 따른 인지적 단서활용의 주요 과를 살펴보면, 상황반응($F=105.45$, $df=1$, 80 , $p<.001$), 과거반응($F=14.87$, $df=1$, 80 , $p<.001$), 단서반응($F=187.66$, $df=1$, 80 , $p<.001$) 및 사고반응($F=4.14$, $df=1$, 80 , $p<.05$)에서 대인단서와 대물단서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상황반응, 과거반응 및 사고반응에서는 대물단서 이야기 점수보다 대인단서 이야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단서반응에서는 대인단서 이야기 점수보다 대물단서 이야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조금호, 1986; Schutz, 1970)와 일치한다. 먼저 단서반응에서의 결과는 유아가 대인단서보다 대물단서를 잘 활용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아는 대인단서를 단서로서 지각하지는 못하지만, 대인단서를 통해서 이야기의 상황과 과거에 대한 추론을 더 잘 이끌어내고 사고반응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활용반응에서는 대인단서 이야기와 대물단서 이야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에 따른 인지적 단서활용의 주요과를 살펴보면, 상황반응($F=6.45$, $df=1$, 80 , $p<.05$), 과거반응($F=5.03$, $df=1$, 80 , $p<.05$), 단서반응($F=6.62$, $df=1$, 80 , $p<.05$) 및 사고반응($F=11.40$, $df=1$, 80 , $p<.001$)에서 일치 과제 점수와 불일치 과제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황반응과 단서반응에서는 일치 과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과거반응과 사고반응에서는 불일치 과제에서 유아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Lagattuta와 Wellman (2001)의 연구에서처럼 일치 과제보다 불일치 과제에서 사고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낯선 과제 상황보다 친숙한 과제

<표 4>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 변량 분석

범주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상황반응	피험자간	연령 오차	.25	1	.25	.16
		종류 오차	125.33	80	1.57	
	피험자내	종류	111.22	1	111.22	105.45***
		종류×연령 오차	.15	1	.15	.14
		일치여부	5.64	1	5.64	6.45*
		일치여부×연령 오차	4.17	1	4.17	4.77*
종류×일치여부	종류×일치여부	5.64	1	5.64	5.60*	
	종류×일치여부×연령 오차	2.56	1	2.56	2.55	
과거반응	피험자간	연령 오차	3.32	1	3.32	5.85*
		종류 오차	45.40	80	.57	
	피험자내	종류	6.17	1	6.17	14.87***
		종류×연령 오차	.37	1	.37	.89
		일치여부	1.35	1	1.35	5.03*
		일치여부×연령 오차	.00	1	.00	.01
종류×일치여부	종류×일치여부	.15	1	.15	.84	
	종류×일치여부×연령 오차	.37	1	.37	2.07	
단서반응	피험자간	연령 오차	20.00	1	20.00	9.68**
		종류 오차	165.34	80	2.07	
	피험자내	종류	207.69	1	207.69	187.66***
		종류×연령 오차	.03	1	.03	.03
		일치여부	5.64	1	5.64	6.62*
		일치여부×연령 오차	.52	1	.52	.61
종류×일치여부	종류×일치여부	.25	1	.25	.43	
	종류×일치여부×연령 오차	.08	1	.08	.13	
사고반응	피험자간	연령 오차	.88	1	.88	10.41**
		종류 오차	6.77	80	.08	
	피험자내	종류	.37	1	.37	4.14*
		종류×연령 오차	.25	1	.25	2.77
		일치여부	.88	1	.88	11.40***
		일치여부×연령 오차	.69	1	.69	8.88**
종류×일치여부	종류×일치여부	.25	1	.25	3.11	
	종류×일치여부×연령 오차	.15	1	.15	1.88	
활용반응	피험자간	연령 오차	.37	1	.37	9.80**
		종류 오차	3.01	80	.04	
	피험자내	종류	.08	1	.08	1.70
		종류×연령 오차	.08	1	.08	1.70
		일치여부	.15	1	.15	3.46
		일치여부×연령 오차	.15	1	.15	3.46
종류×일치여부	종류×일치여부	.00	1	.00	.07	
	종류×일치여부×연령 오차	.00	1	.0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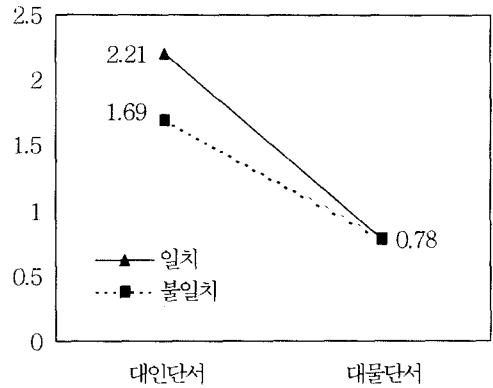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그림 1> 상황반응에서 유아의 연령,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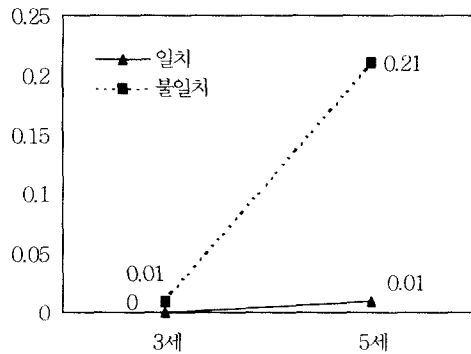
상황반응에서 유아의 연령,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4.77, df=1, 80, p<.05$)가 나타났다(그림 1). 3세 유아의 경우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5세 유아의 경우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 간의 차이($t=3.13, df=40,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상황반응에 있어서 연령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세 유아의 경우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세 유아의 경우 불일치 과제보다 일치 과제에서의 상황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황반응에서 단서의 종류,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5.60, df=1, 80, p<.05$)가 나타났다(그림 2). 대인단서 이야기의 경우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 간의 차이($t=2.91, df=40, p<.01$)가 유의하였으나, 대물단서 이야기의 경우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대인단서의 경우 불일치 과제보다 일치 과제에서 더 많은 상황반응이 나타났으나, 대물단서의 경우 일치 및 불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2> 상황반응에서 단서의 종류,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사고반응에서는 유아의 연령,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 간에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8.88, df=1, 80, p<.01$)가 나타났다(그림 3). 3세 유아의 경우 일치 및 불일치 과제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5세 유아의 경우 일치 및 불일치 과제 간의 차이($t=-3.24, df=40,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세 유아의 경우는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에서 사고반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5세 유아의 경우는 일치 과제보다 불일치 과제에서 높은 사고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사고반응에서 유아의 연령,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정서 상황과 관련한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의 발달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가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아의 연령, 단서의 종류 및 상황과 정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중류층 거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41명과 5세 유아 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과정은 전사한 후 분석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서추론 과제에서 유아의 인지적 단서 활용 능력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3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과거반응을 더욱 빈번하게 보였으나,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단서반응, 사고반응 및 활용반응을 더욱 빈번하게 보였다. 즉 나이 어린 유아는 사고 과정이 단순한 과거반응을 더 많이 익숙하게 보이고, 5세 유아는 단서인식 능력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인다. 5세 유아는 정서와 인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2, 3세 유아는 정신에 대해 초보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정신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반면, 4세 유아는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와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고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Flavell et al., 1992)는 결과와 일치한다.

3세 유아의 경우 상황과 정서의 일치 및 불일치 과제에서는 상황반응에 차이가 없었으나, 5세 유아의 경우 불일치 과제보다 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4세

유아도 간단하고 친숙한 상황에서 익숙한 정서를 접할 때 그 상황과 연합된 전형적 정서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Borke, 1973; Gnepp, 1983; Gnepp et al., 1982; Wellman, Harris, Banerjee, & Sinclair, 1995), 과제 상황과 인물의 정서를 연결지어 상황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이다. 3세 유아의 경우 현재의 상황과 현재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스크립트 지식이 부족하고, 불일치 과제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에 유사하게 반응한 반면에 5세 유아의 경우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를 구분할 수 있고, 이미 스크립트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므로, 기존 스크립트 지식과 일맥상통하는 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을 더 많이 보인 것이다.

또한 3세 유아는 일치 및 불일치 과제에서 사고반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5세 유아는 일치 과제보다 불일치 과제에서 사고반응을 빈번하게 보였다. 이는 5세 유아의 경우에 일치 과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스크립트 지식을 사용하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특별히 사고반응을 보이지 않은 듯하다. 반면 불일치 과제에서는 유아가 가진 일반적인 스크립트와는 상충하는 상황이므로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반응을 더 많이 보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제 상황과 인물의 정서간의 불일치가 유아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유아의 사고반응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세 유아는 대인단서 및 대물단서 이야기에 별다른 사고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5세 유아는 대물단서 이야기보다 대인단서 이야기에서 사고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는 3세 유아는 대인단서 이야기와 대물단서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5세 유아는 대물단서 이야기보다

대인단서 이야기에서 과거를 사고와 연관짓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단서의 종류에 따라서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이 다르다. 대인단서 이야기에서는 상황반응, 과거반응 및 사고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대물단서 이야기에서는 단서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조궁호, 1986; Schutz, 1970), 대인단서 이야기와 대물단서 이야기에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즉 유아는 대인단서를 통해 자신을 참고하여 타인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조궁호, 1986), 이야기의 상황과 과거에 대한 추론을 더 잘 이끌어내고, 사고반응도 많이 보인다. 이는 유아가 대인단서를 생각이나 기억과 같은 사고반응과 연관짓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인단서의 경우 불일치 과제보다 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이 많이 나타났으나, 대물단서의 경우 일치 및 불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아가 대인단서 이야기에서는 자기를 참고하여 타인을 판단하여 자신이 경험한 일치 과제에 대해서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불일치 과제에 대해서는 낮은 반응을 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물단서 이야기는 대인단서 이야기에 비해 유아에게 유사성이 부족하므로, 일치 과제와 불일치 과제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과 정서의 일치여부에 따라 단서의 활의 인지적 단서활용은 다르다. 일치 과제에서 상황반응과 단서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불일치 과제에서 과거반응과 사고반응은 빈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치 과제에서는 유아가 자신이 가진 스크립트 지식과 일치하는 현재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단서에 근거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가 낮은

과제 상황보다 친숙한 과제 상황의 스크립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성미영, 2002), 일치 과제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 지식을 사용하여 응답을 하므로 사고반응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반면 불일치 과제에서는 유아가 참조할 스크립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 상황에서 자신의 스크립트 지식과 맥락이 통하는 과거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이러한 과거 사건을 사고과정과 연관지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치 과제에서는 유아가 스크립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는 친숙한 사건을 대했을 때 그 사건을 구성하는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계열화하며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서나 별개의 단서에 대한 인지적 단서활용을 비교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타인의 내적 상태 이해와 관련된 개인단서를 대인단서와 대물단서로 구분하여 인지적 단서활용의 차이를 밝혔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 단서의 종류 및 상황-정서 일치여부에 따른 다양한 상황 요인의 조합을 고려해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단서활용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에게 언어적 진술을 요구하는 언어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림카드를 이용해 유아에게 이야기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나,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같은 일반적 언어 능력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배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의 차이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3세 및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다른 광범위한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 집단을 선정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의 내용은 유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 상황과 실험 상황에서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학령 전 유아의 인지적 단서활용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민화 (1992). 개인화된 추론의 발달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태 (1990). 유아의 타인 감정 추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미영 (2002). 과제 상황별 유아의 스크립트 지식과 주제 수행 기술 및 스크립트 향상 훈련 효과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선영 (1992). 5, 6세 아동 및 7세 아동의 인지적 단서작용에 관한 이해.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원·최보가 (2001). 생각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학 전 아동의 이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05-120.
- 이순이 (2001). 유아의 인지적 단서와 관련된 정서변화 원인의 이해능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공호 (1986).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197-223.
- Bauer, P. J., & Mandler, J. M. (1989). One thing follows another: Effects of temporal structure on 1- to 2- year-olds' recall of ev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197-206.
- Beal, C. R. (1985). Development of knowledge about the use of cues to aid prospective retrieval. *Child Development*, 56, 631-642.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 _____. (1973). The developmental of empathy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between three and six years of age: A cross-cultur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9(1), 102-108.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Flavell, J. H., Green, F. L., & Flavell, E. R. (1992). Young children's knowledge about thinking.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 Geis, M. F., & Lange, G. (1976). Children's cue utilization in a memory-for-location task. *Child Development*, 47, 759-766.
- Gnepp, J. (1983).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6), 805-814.
- _____, & Gould, M. E. (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s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_____, Klayman, J., & Trabasso, T. (1982). A hierarchy of information sources for inferring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11-123.
- Gordon, F. R., & Flavell, J. H. (1977). The development of intuitions about cognitive cuing. *Child Development*, 48, 1027-1033.
- Gove, F. L., & Keating, D. P. (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594-600.

- Hudson, J., & Nelson, K. (1983). Effects of script structure on children's story recall.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625-635.
- Kobasigawa, A. (1974). Utilization of retrieval cue by children in recall. *Child Development, 45*, 127-134.
- Lagattuta, K. H., & Wellman, H. M. (2001). Thinking about the past: Early knowledge about links between prior experience, thinking, and emotion. *Child Development, 72*(1), 82-102.
- _____, & Flavell, J. H. (1997).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thinking and feeling: Cognitive cuing and emotional change. *Child Development, 68*(6), 1081-1104.
- Lewis, M. (1989). 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al scripts.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350-37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tter, K. (1978).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of an external retrieval cue strategy. *Child Development, 49*, 1227-1230.
- Russell, J. A. (1990). The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1*, 1872-1881.
- Russell, J. A. (1989). Culture, script,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293-31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nk, R. C., & Abelson, R. P.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Hillsdale, NJ: Erlbaum.
- Schutz, A. (1970).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odian, B., & Schneider, W. (1990). Children's understanding of cognitive cuing: How to manipulate cues to fool a competitor. *Child Development, 61*, 697-704.
- Wellman, H. M., Harris, P. L., Banerjee, M., & Sinclair, A. (1995). Early understanding of emotion: Evidence from natural language. *Cognition and Emotion, 9*, 117-149.

2004년 4월 30일 투고 : 2004년 5월 17일 채택